

# 김남주, 화끈한 연기로 시청자 홀리다

### JTBC '미스티'서 앵커로 완벽 변신

### 미모·패션·카리스마 등 칭찬 일색

### 깊이 있는 '눈빛 연기'로 시청자 유혹



김남주(47·사진)의 화끈한 연기가 안방극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한다. 미모와 연기력, 카리스마를 두루 장착한 그가 화면을 짝 장악하며 남녀 시청자를 모두 사로잡았다. 6년 만에 컴백했지만 세월도, 공백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그의 열연 덕에 JTBC 금토극 '미스티'가 6회만에 시청률 7%를 넘어서며 화제다.

◇ 눈부신 미모·당찬 카리스마... "여자가 봐도 멋지다"  
 '미스티'의 주인공은 미모와 실력이 뛰어난 최고의 앵커 '고혜란'. 김남주가 아니었다면 과연 누가 해낼 수 있었을까 싶을 만큼 김남주는 고혜란을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있다.

마흔일곱의 나이지만 20~30대가 부럽지 않은 빛나는 미모를 과시하고 스타일에서도 센스와 세련됨으로 무장한 김남주는 움직임 하나하나가 패션 화보처럼 느껴질 정도다. 많은 여배우가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해 인위적으로 얼굴에 손을 댔다가 어색한 얼굴로 등장해 이런저런 말을 만들어내는 상황에서 김남주는 6년 만의 컴백임에도 완벽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관리된 모습으로 나타나 감탄하게 만든다.

"김남주 외모패션까지 공백기에 눈 게 아니구만. 진짜 아나운서보다 더 앵커 같다"(네이버 아이디 'zgp1\*\*') 등의 찬사가 이어진다.

눈부신 미모에서 나오는 자신감으로 김남주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고혜란을 거침없이 표현해내고 있다. 앵커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낙태도 불사했던 고혜란의 야망과 집착을 오직 직선 코스만을 택해 그려내며 당찬 카리스마를 뽐낸다. 이로 인해 "여자가 봐도 멋지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또한 앵커로 완벽하게 변신하기 위해 평소보다 낮은 발성, 분명한 발음, 속도를 조절하는 대화법을 연마한 김남주의 노력이 고스란히 열매를 맺어 감상의 즐거움을 더한다. JTBC 손석희 앵커를 모델로 삼아 연습했을 듯한, 그러면서도 김남주만의 색깔을 넣어 창조한 고혜란 앵커는 빈틈하나 없이 "짱짱"한 모습이다.

방송에 앞서 김남주는 "이 역할을 놓치면 후회할 것 같다"고 했는데, '미스티'가 김남주를 놓쳤으면 큰일 날 뻔했다. 김남주가 이렇게 대단한 배우인 줄 미처 몰랐다는 반응들이 나온다.

"미스티"의 함영훈 CP는 "김남주 씨가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잘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 19금 격정 멜로·탄탄한 스펀지... "눈빛 연기 압권"  
 이러한 김남주의 강렬한 매력에 '미스티'격정 멜로라는 확실한 셀링 포인트가 합쳐지면서 '미스티'는 강한 폭발성을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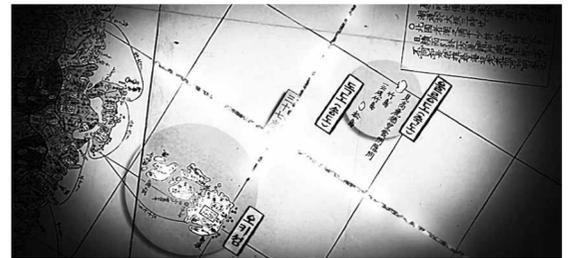
1~3회 김남주와 고준의 진한 애정신을 배치하며 '19세 미만 시청금지'를 표방했던 '미스티'는 그 초반의 화제성을 도약대로 삼아 6회에서 시청률 7%를 넘어서었다.

"어른"들의 속고 속이는 아슬아슬한 지정극으로 달리다 갑자기 한 사람이 죽고 그 사건의 용의자로 고혜란이 몰리는 이야기 구조는 호기심과 흥미의 가속페달을 밟는다.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고혜란에게 그가 하는 말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 김남주는 고혜란에 감정이입을 한 시청자를 좌지우지하며 혼란에 빠트리는데, 특히 눈빛 연기가 압권이라는 평가다. 자신감과 절박함, 슬픔과 패배감, 두려움과 분노 등의 감정을 선명하면서도 깊이 있게 실어나르는 눈빛 연기가 그의 미모만큼 빛난다.

고혜란이라는 인물은 47세의 여배우에게는 자칫 '과유불급'이 될 수도 있었을 개릭 터였으나 김남주는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고혜란을 맞이했다. 고급스러운 맞춤형 의상을 차려입은 듯한 김남주의 연기로 인해 '미스티'는 곧바로 시청자를 설득하고 유혹하는 드라마가 됐다.

김남주는 제작발표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노력했다"고 밝혔는데, 그 말이 허언이 아니게 됐다. /연합뉴스

# '독도는 우리땅' 고지도 통해 밝힌다



## MBC 3·1절 다큐 '독도, 지도의 증인' 내일 방영

MBC TV는 3·1절을 앞두고 오는 28일 특집 다큐멘터리 '독도, 지도의 증인 <사진>'을 방송한다고 26일 밝혔다.

포항MBC에서 제작한 이 다큐멘터리는 일본과 서양의 방대한 고지도를 분석해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발굴하고 일본 주장의 모순을 철저히 밝히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은 교과서를 왜곡하고도 하고, 조작된 지도를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등 독도를 침탈하려는 야욕을 끊임없이 내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 의무성은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는 근거로 1846년판 개정 일본어지도정도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지도는 원본과 달리 민간에서 의도적으로 독도를 일본령인 것처럼 채색하고 위선과 경선을 확정된 것이다. 또 에도막부의 일본 공식 관찬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표시돼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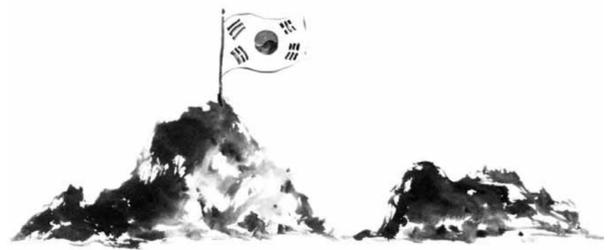
또 1797년 울릉도를 서양 최초로 정확한 좌표의 지도에 올린 라페루즈 세계 탐험대와 1849년 독도를 서양 최초로 발견한 프랑스 포경선 리양쿠르호 등은 목적 당시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서로 떼 수 없는 모도(母島)와 자도(子島)의 관계로 보고 조선의 섬으로 표기했다.

서양고지도에서 동해를 표기한 이름도 동양해, 한국해 등 다양했지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일본해로 공식화됐다. 제작진은 "동해를 찾지 않으면 독도는 일본해에 떠 있는 섬이 된다"고 강조했다.

제작진은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과 서양의 고지도들이 들려주는 역사적 진실을 파헤치며, 독도와 동해의 이름을 지켜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환기한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 8월 한국 PD연합회에서 '제210회 이달의 PD상'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았다.

오는 28일 오후 4시 5분 방송.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 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다시 만나는 하얀거탑 UHD(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힐링다큐 나무야 나무야 시즌3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55 UHD 한식의 마음	00 인형의 집(재) 40 생생정보스페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재)		00 12 MBC 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독톡 보편성(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유적토크쇼 가요1번지 스페셜(재) 50 특집다큐 공학의 미래를 보다	00 1대 100	2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55 닥터 365
2	4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15 꾸러기 식사교실 45 프리파라 3	00 뉴스브리핑
3	40 UHD 특집 화산섬 오름꽃(재)	0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15 MBC네트워크특선 <부은 백세 여명차 바다야>(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00 양코르 MBC 스페셜 <부모 독립 프로젝트 쓰고 죽을까?>	00 양코르 고강연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제보자들(재)	00 5 MBC 뉴스 15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30 전생애 웬수들 (재)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불타는 청춘(재)
7	00 KBS 뉴스 7 35 KBS광주 특별기획 뿌리 깊은 나무 한창기의 유산(재)	50 인형의 집	15 전생애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1대 100	5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40 KBS 디렉터스컷 요리인류-서울의 맛			
10	35 쉼터 40 KBS 뉴스라인	00 라디오 로맨스	00 다시 만나는 하얀거탑 UHD	00 키스 먼저 할까요?
11	1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2부작 <교육 희망 특혜받은 놀이다>	10 허투범만 재워줘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00 독립영화관 <춘동>	40 행복한 지도 <재현, 영월편>(재)	05 발칙한 동거 반방 있음 스페셜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15 꼬마기사 마이크	19:50 극한직업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중국 비경 서해객유림기 우이산(우이산)>	09:40 정수의 비밀(재) <중국 비경 서해객유림기 우이산(우이산)>	15:30 오도트, 이상한 아이들	20:40 다큐오늘 <생태를 행복의 집배원 마이나>
06:00 한국기행(재) <매생이 굴국과 담디라 골짜기>	10:30 한국기행(재) <매생이 굴국과 담디라 골짜기>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20:50 세계테마기행 <북선 줄거울 이소리얼 겨울기행 2부 오려된 도시로의 초대>
06:20 세계테마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00 엄마 깨투리	16:15 투디다공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2:00 EBS 점오 뉴스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당동영 유치원1~2(재)
07:30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큐	17:15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21:30 한국기행
07:45 출동! 슈퍼왕스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7:3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21:50 EBS 다큐프라임 <생명 전략 번식-은밀한 전쟁>
08:00 당동영 유치원1~2	12:45 메디컬 다큐-7요일	17:45 호기심 소녀 도트	22:45 글로벌 아바 찾아 삼만리
08:30 플라워링 하트	13:40 성난 물고기(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너스나1~4	23:35 메디컬 다큐 - 7요일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 화산섬의 비밀	19:00 몬카트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09:00 몬카트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24:30 한국영화특선 <죽어>
09:15 소피 루비	15:00 우주탐방기 갯	19:30 EBS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7일(음 1월 12일 庚寅)

<p><b>子</b></p> <p>48년생 원년부터 인식하라. 60년생 의지가 확실하다면 능히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다. 72년생 오히려 상대가 더 바라고 있던 바이기도 하다. 84년생 추후에 왔던 가치나 지망하고 있는 기운이 점점 소멸되어가는 판국을 뒤흔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6, 53</p>	<p><b>午</b></p> <p>42년생 대응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 54년생 마치고 나서야 근본적인 연유를 깨닫게 되리라. 66년생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다. 78년생 지나치면 부작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90년생 영원히 각인될 수 있는 일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08, 97</p>
<p><b>丑</b></p> <p>49년생 점점 기막을 잡게 되는 형국이다. 61년생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면서 활기차게 변성하는 운로이다. 73년생 의외로 결과는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85년생 중대한 일으므로 잘 새겨 두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0, 46</p>	<p><b>未</b></p> <p>43년생 다소의 마찰이 예상되나 우회로를 모색하라. 55년생 자리 잡게 될 것이다. 67년생 발상에 있어서 유연하다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79년생 경제성에 일조할 것이다. 91년생 본격적으로 주력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행운의 숫자 : 52, 82</p>
<p><b>寅</b></p> <p>50년생 우연한 기회를 제공받고 매우 기뻐할 수 있다. 62년생 단순한 관점으로 바라보다면 생경한 관계가 될 수도 있느니라. 74년생 완급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불과할 것이다. 86년생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57, 93</p>	<p><b>申</b></p> <p>44년생 대안이 없다면 현상 그대로 두는 것이 최상책임을 알아야 한다. 56년생 역발상의 탁월함이 두드러질 것이다. 68년생 기호와 취향까지 고려한다면 더할 나위 없었다. 80년생 마무리 할 수 있는 계획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69, 13</p>
<p><b>卯</b></p> <p>51년생 이전의 국량과 비교하였을 때 편이해질 수도 있다. 63년생 그동안 풀어 왔던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75년생 원점에서 새롭게 살펴보는 것이 합당하다. 87년생 유동적 가변성을 인식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27, 79</p>	<p><b>酉</b></p> <p>45년생 드디어 기대에 왔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57년생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 69년생 아는 길도 물어서 가는 것이 안전하다. 81년생 정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86, 09</p>
<p><b>辰</b></p> <p>52년생 상부상조 하라. 64년생 내버려 두면 위험한 판국에 이를 수도 있으니 날날이 확인해봐야 할 때가 되었다. 76년생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꽃을 틈수도 있다. 88년생 이상하면 삼고고 물어 보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85, 96</p>	<p><b>戌</b></p> <p>46년생 조리에 맞지 않다면 당연히 폐기하는 것이 백 번 옳다. 58년생 생경한 모습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70년생 자제하지 않는다면 불미스러운 형태로 비화 되리라. 82년생 전에 손을 쓰지 않으면 후회하리라. 행운의 숫자 : 22, 41</p>
<p><b>巳</b></p> <p>53년생 과감한 결단이 효율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65년생 제대로 호평 받게 되는 부딪힘이 있다. 77년생 폭발적인 성장 동력이 발생하리라. 89년생 잡으려는 것은 안 잡히고 계속해서 쫓아내는 것만 들어오는 꼴이다. 행운의 숫자 : 47, 30</p>	<p><b>亥</b></p> <p>47년생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할 사건이 발생한다. 59년생 예상했던 대로 전개되는 형국이다. 71년생 전체적인 대안이 되어 줄 확실한 해결책이 생길 것이니 기대해도 좋다. 83년생 발돋움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97, 74</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